

김상규 <제작연대기: 1967-2014>¹⁾

홍성욱 (서울대학교, 과학기술학)

1967년 7월, 우리나라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 1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9명의 선수단을 처음으로 파견했다.²⁾ 선수단은 출국 전에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해서 출국신고를 했고, 대통령은 태극기를 주면서 “기술입국”을 선양하라고 이들을 격려했다. 처음 출전했지만, 금 2, 은 1, 동 2, 특상 1개를 수상한 우리나라는 종합 4위를 했다. 귀국하는 날 김포공항에서 광화문 시민회관까지는 1,000여명의 시민이 인도에 늘어서서 카퍼레이드를 하던 선수들을 환영했다. 시민회관에서는 9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대회가 있었고, 환영대회 이후 선수단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에게 다시 귀국신고를 했다. 대통령은 다과를 베풀고 격려금을 하사하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10년이 지난 1977년에 우리나라 선수단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첫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이 돌아오던 날에 이루어진 카퍼레이드, 환영인파, 환영식은 기능올림픽의 역사를 통해 최고조에 달했다. 이 해에도 대통령은 선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훈장을 수여하면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977년의 위업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 서독, 대만 등을 제치고 종합 1위 9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1970년대 당시에 기능올림픽과 관련된 뉴스는 신문지면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했다.

-
- 1) <사물학II : 제작자들의 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15.02.17 - 2015.06.28.) 전시 중 일부. 전시는 손주영, 이현주 학예사가 기획, 진행했다.
 -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 (IVTC) 이다. 이 설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가의 역사 대해서는 Kim(2012), 한국개발연구원(1994)를 참조.



〈그림 1〉 세계기능올림픽대회 처녀 출전에서 종합 4위를 거둔 선수단의 귀국을 보도한 기사. (『매일 경제』 1967. 7. 27).

이런 국제대회에서의 우승은 기능 인력의 자부심을 고양시켰다. 국제대회에 출전한 기능인들은 중학교 직업학교나 공업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역대회와 전국대회에서 1등을 거머쥔 뒤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이었다. 세계기능올림픽은 당시 만 20세 이하의 선수들만 출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을 한 분야에 20-30년간 종사한 '장인'이라고 부르기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 언론은 이들을 침성대, 팔만대장경, 고려청자와 이조백자, 대동여지도를 만든 조상들의 솜씨를 계승한 "현대판 장인"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 1994). 그렇지만 도장, 판금, 용접, 밀링머신, 선박, 기계조립, 기계제도 등에서 메달을 딴 이들은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을 선두에서 이끄는 "산업전사" 선봉대에 더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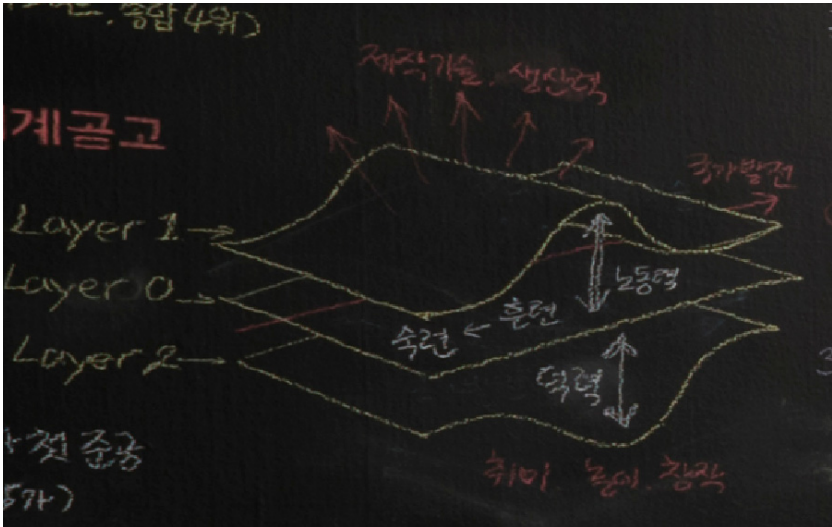


〈그림 2〉 김상규 〈제작연대기, 1967-2014〉 국립현대미술관. ©앨리스온.

디자이너 김상규의 〈제작연대기, 1967-2014〉는 커다란 칠판에다가 기능올림픽 픽에 처녀 출전한 196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기능올림픽 참가와 수상의 역사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연표의 맨 꼭대기는 ‘과학기술처 설립’ ‘특허청 설립’ ‘기능장려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의 추이를 기록하고, 그 아래 기능올림픽 대회의 개최와 입상 성적을, 그리고 그 밑에 금오공고, 항공기능대학, 3차 교육과정 제정 같은 교육제도의 변화를,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전파과학신서〉 시리즈, 『과학동아』, 『무선모형』 같은 서적의 발간이나 교육문화 기관의 설립에 관련된 연표를 적고 있다. 이 연표의 좌측에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기능의 훈련과 숙련의 레이어(layer)를 가운데에 놓고 그 위로 노동력-기술-생산력이 증가하고, 그 아래로 취미나 창작 같은 ‘덕력’³⁾이 축적됨을 보여준다 (그림

3) ‘덕력’은 사회적으로 널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 등에 오래 매진하여 쌓은 지식 혹은 능력을 의미하는 속어이다. 일반적으로 덕후(오타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진 일종의 전문지식 혹은 숙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칠판의 오른 편에는 당시 1970년대 국민학생(초등학생)이 배웠던 실과 과목의 교과서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술, 공업 과목의 교과서가 전시되어 있다 (그림 2 참조). 이런 교과서들은 ‘공업입국’의 주인공이 꼭 공고나 직업학교를 나온 기능공만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림 3〉 김상규 〈제작연대기, 1967-2014〉 중 일부. ©앨리스온.

디자이너 이상규 작가는 왜 세계기능올림픽에 초점을 맞추었을까? 우리나라는 1993년까지 세계기능올림픽을 9연패하고, 2013년까지 통산 18번 우승을 했다. 그런데 1960-1970년대의 카퍼레이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때에 비해 요즘의 기능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느낀다.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지만, 국민 다수는 이런 올림픽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다. 4년마다 열리는 체육인들의 올림픽 축전이나 월드컵이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생중계 되는 데 비해, 기능올림픽은 그 존재감조차 미미하다. 그런데, ‘왜 1960년대 후반부터 기능올림픽에 대한 사회적 열풍이 생겼고, 이것이 왜 점차 소실되었을까’ ‘기능올

림픽이 1960-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던 한국의 정부와 사회에 실제로 어떤 기능을 했을까가 역사학자들의 질문이라면 (Kim 2012), 예술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변화를 추적한다. 이상규 작가가 던지는 질문은 70년대 기능올림픽과 2010년 이후의 '제작자 운동'(Maker Movement)사이의 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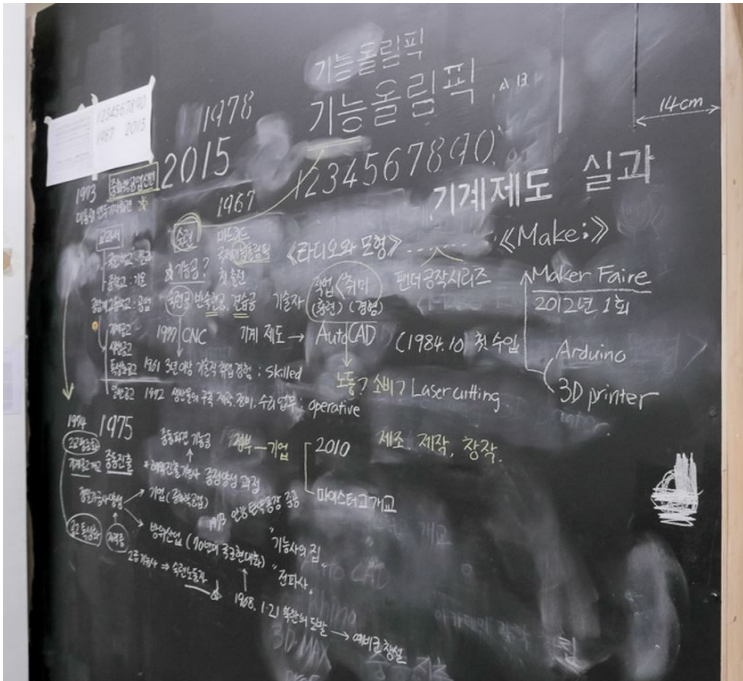
'제작자 운동'은 최근에 부상한 사회적 현상이다. 이 단어는 미국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의 데일 더그허티(Dale Dougherty)가 2005년에 만들었는데, 이 해에 잡지 『제작하기』(Make)가 출간되었다. 이 운동은 3D 프린팅, 레이저 커터, 3D 스캐너 등의 새로운 디자인 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이를 사용하는 제작자들의 협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졌다. 이들은 또 중국 등의 공장을 이용해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했다(Anderson 2012). 이전의 컴퓨터 해커가 비트(bit)의 세상에서 한 일을, 제작자는 원자(atom)의 세상에서 새롭게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중적인 잡지 『와이어드』(Wired)는 제작자 운동의 토대가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에 놓였지만, 그 본격적인 시작은 2011년이라고 잡고 있다.⁴⁾ 제작자들은 심취, 공유, 실험의 정신을 가지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이용해서 기업이나 유명 작가들이 하던 전자, 기계, 목공 작업을 수행하고 심지어는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단초들이 보이다가 2012년 6월에 서울에서 첫 제작자 축제가 열리면서 제작자 운동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지만, 김상규는 기능인들의 훈련과 숙련이 밑으로 '덕력'의 심화라는 하위문화(sub-culture)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 이 '덕력'의 하위문화는 다름 아닌 제작자 문화이다.

4) 한 평가자는 오토캐드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판매하던 오토데스크(Audodesk)사가 DIY 공동체의 온라인 인스트럭터블(Instructables)을 매입하고, 디트로이트 제작자 축제(Maker Faire)가 포드사의 후원으로 열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르두이노(Arduino)에 대적할 수 있는 닷넷가제티어(.NET Gadgeteer)를 내놓아서 새로운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제작을 가능케 하고, 제너럴모터스사가 페이스북에서 제작자들에게 3D 프링팅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공유하라는 캠페인을 벌인 2011년을 제작자 운동의 원년이라고 본다 (Carmody 2011).

전시를 준비하는 초기에는 기능공의 탄생이 제작자의 탄생과 느슨하게나마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예컨대, 공고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공고를 그만둔 이들이 청계천 주변에서 생업을 했을 것이고 그들이 용산까지 이어지면서 메이커[제작자]들의 선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 것이다. (김상규 2015, p. 28).

그렇지만 1970년대 기능공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이런 연관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능공들 대부분은 대기업의 직원이 되었고, 이런 ‘신분상승’은 기능올림픽출신의 기능공들에게서는 더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임소정 2015; 유광호 2014; Kim 2012). 김상규 작가도 70년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국가의 목적에 맞게 훈련받은 기능공들이 중화학공업의 현장에서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지, 지금의 제작자 운동처럼 대항 문화(counter-culture)를 만들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는 “기능공과 제작자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정부의 정책에서 양산된 인력이 개인 제작자가 되거나 제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선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다”(김상규 2015, p. 29)고 진술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신에 1970년대의 다른 하위문화에 주목한다. 그것은 취미, 즐거움을 좇는 사람들이 동호회 차원에서 진행시켰던 라디오 제작이다. 1975년에 『라디오제작 입문』이란 책이 <과학기술사>에서 나왔고, 『라디오와 모형』이라는 잡지가 다음 해에 창간되었다. 라디오 제작과 2000년대 제작자 문화를 연결시키려는 그의 시도는 철판에 빼곡히 쓴 연대기를 보면 분명해 보인다. 연대기의 마지막 행의 서적발간을 보면, 1973년에 <전파과학신서>의 발간, 1976년에 『라디오와 모형』 잡지의 발간, 88년에 용산전자랜드 개관, 94년에 『과학동아』 창간 같은 항목이 있다. 그러다 2000년에는 <아트센터 나비> 개관, 2004년에 앨리스온(AliceOn) 오픈, 2007년에 <문지문화원 사이>의 개관 등의 연표가 이어진다. 이렇게 그의 연대기를 따라가다 보면 1970년대의 기능올림픽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하위문화와 2010년대의 제작자 문화가 만난다.



〈그림 4〉 작가 노트. 〈라디오와 모형〉과 〈Make:〉 사이에 점선이 그려져 있고, 그 중간에 '팬더공작사리조트'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물론 1970년대 라디오 제작이 2010년대의 제작자 문화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연대기에도 나오지만, 『라디오와 모형』은 용산전자랜드가 설립되기 일 년 전인 1987년에 폐간되었다. 이후 1993년에 월간 『무선모형』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디지털 DIY를 가능케 한 프로세싱과 아두이노가 개발된 2000년대 중반과 어떤 연결을 맺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작가의 작업 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4), 라디오 동호회와 2010년대 제작자 문화 사이에는 실선의 연결이 아닌, 점선의 연결만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 지점이 예술과 역사가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를 한 번 살펴보자. 우리는 1970년대 기능공들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가? 1970년대

의 기능공들이 국가주도의 재벌 중심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편입된 삶의 궤적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능올림픽 수상자들 중에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중에 대학 졸업장을 획득한 사람도 많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고, 동네 전파상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기능과는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한국개발연구원 1994의 인터뷰 참조). 기능올림픽 출신이 이랬다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공고 졸업생이나 직업학교 졸업생 중에 세운상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또 이런 이들 중에서 2000년대 이후의 DIY 제작자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없었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작가는 한국의 기능공과 제작자의 연대기가 아직도 미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들에 대한 역사도 미완의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 연대기, 1967-2014>는 1970년대와 2010년대라는 세대를 뛰어 넘는 두 시점의 상이한 사회적 현상들을 점선으로 이어보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이 즐거움은 예술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터져 나온다.

1977년, 기능올림픽 지역대표 선발에서 아깝게 떨어져서 국가대표로 선발 되지 못한 지방 공고의 한 졸업생이 있다. 그는 세운상가의 한 전기 점포의 점원으로 취직함으로써 자신의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열심히 일했던 그는 15년 만에 세운상가에 자신의 점포를 열고, 당시에 라디오 조립, 무선 완구 조립, 무선 비행기 제작, 깡통 로봇 조립에 열중이었던 학생들과 즐겁게 교류한다. 세월이 더 흘러서 이들 학생들 중에서 아르두이노와 프로세싱을 배워서 새로운 제작자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도 젊은이들은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진 세운상가 아저씨와 같이 작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얼마나 즐거운 상상인가. 이런 상상이 역사에 근접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일은 예술가가 아닌 기술사학자의 몫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규, 2015. “제작문화 연대기 만들기” 『사물학 II : 제작자들의 도시』
국립현대미술관.
- 유광호, 2014. “1970-80년대 양성된 중화학공업부문 기능공의 계층이
동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 (주)풍산 안강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소정, 2015. “금오공업고등학교이 설립과 엘리트 기능 인력의 활용,
1973-197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개발연구원, 1994, 『한국인의 장인의식: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
자들을 통해 본 장인의식의 현주소』 일지사.
- Anderson, Chris, 2012, *Makers: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Crown Business.
- Carmody, Tim, (2011), “Big DIY: The Year the Maker Movement
Broke,” *Wired* (6 August 2011). <http://www.wired.com/2011/08/big-diy/>
- Kim, Tae-Ho, (2012), “Forgotten ‘Industrial Warriors’: The ‘Skill
Olympics’ and the Rise and Fall of Vocational Training
in South Korea in the 1970s,” (draft, 2012).